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6월 2일)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태고종 총무원은 7월 12일 양주 청련사에서 '제27 · 28대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사 이운 의식을 통해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 왼쪽)과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사진 오른쪽)이 법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대승교화종단 이룩해 태고종 중흥 이끌겠다"

태고종, 제27 · 28대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 봉행

7월 12일 청련사서… 2000명 운집
상진 스님 취임사서 공약 이행 약속
"최고 불교문화종단으로 나아갈 것"
호명 스님 "집행부 적극 협조" 당부
윤 대통령 축전 "태고종 발전 기대"
여야 대표 등 정계인사 축사 이어져

양주 ·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한국불교의 종조이신 태고 보우 국사의 법손으로서 한국불교태고종의 법통과 법맥을 전승하고 수호하며 본종의 정통성과 전통성의 위상과 가치를 굳건히 확립해 종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으로서 태고종의 위상 강화와 확립.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상진 스님이 내놓은 취임 일성이다. 이 일성에는 태고종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불교 최고의 불교문화 보유종단으로 태고종을 발전시키겠다는 상진 스님의 의지가 담겼다.

태고종 총무원은 7월 12일 양주 청련사 대적광전 일원에서 '제27 · 28대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이 ·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원로의장 도광 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스님과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등 태고종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조계종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지도자와 경기북부사암연합회장 초격 스님(봉선사 주지) 등 지역 불교계 인사,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도광 스님은 법어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28대 집행부를 기틀 삼아 종단 발전에 나설 것을 태고종도들에게 당부했다.

도광 스님은 "태고종도는 밝은 선교방편으로 대중을 섭수하고 불조의 혜명을 전승함에 새로운 집행부를 기틀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발걸음을 같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사현정의 길목에서 책임자의 소임이 그렇게나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음"을 이임사를 통해 술회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의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호명 스님은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위해 힘껏 협조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중들도 발전하는 태고종에 힘과 원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제28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상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선거 당시 밝힌 공약인 △문화사업단 설치 △지방교구 자율 운영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재정 확립 등을 이행해 태고종 중흥의 기틀을 다질 것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종도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종심과 공심으로 종단의 중흥 발전을 위해 총무원장 출사표를 던질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책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나아가 불교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 한국불교 최고의 불교문화 보유 종단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태고종 전 종도는 '대승교화종단'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불은(佛恩)을 갚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부디 종단 중흥과 발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대원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상진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상진 스님은 종단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전통불교문화 복원과 전승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며 "상진 스님의 원력과 소신이 종단 화합과 불교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웃종단 지도자와 정계 인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상진 스님의 원력으로 태고종이 대승교화종단으로서 불법 홍포와 한국불교 중흥에 이바지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축사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의 용상대덕 스님, 300만 종도께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회의 중심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기도와 정진으로 보듬고 위로해달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교의 전통의례를 그대로 전승해온 태고종은 문화적으로 국민을 한마음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태고종의 중흥과 발전을 기원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태고종의 도약과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축하했다.

이와 함께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기원했다.

이 · 취임법회 이후 상진 스님은 탑전으로 나아가 종도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소통 행보를 펼쳤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종문에 들어온 이후 오늘처럼 종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 없었다"면서 "저는 오늘 법회를 통해 태고종의 가능성을 봤다. 이를 보여주신 종도들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고, 원한은 모래밭에 새기라고 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잊지 않는 것"이라며 "오늘 종도들이 보여주신 은혜를 마음 속에 새기며 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27일 제28대 총무원장 공식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은 지난 4월 18일 열렸던 선거에서 62.1%라는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수봉당 상진 스님은

태고종단 교육 · 행정직 두루 역임 '실무형 리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수봉당 상진 스님〈사진〉은 종단의 주요 교육 및 행정직을 두루 역임한 '실무형 리더'로 평가된다.

1991년 태고종 중앙금강계단 태고사에서 철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상진 스님은 1994년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종단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장과 한국불교법사대학 교수, 보우승가대학 교수,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등 여러 교육직을 역임하며, 태고종 승가교육을 이끌었다. 또한,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과 제13 · 14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 종단 행정 · 입법부에서 쉼 없이 활동했다.

청련사를 서울 왕십리에서 경기 양주 장흥면으로 이전하며 사격을 일신시킨 상진 스님은 양주불교사암연합회 제7대 회장과 양주경찰서 경승실장을 역임하며 지역불교 발전과 양주 지역 포교에도 힘썼다.

어장인 상진 스님은 전통불교문화 전승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이사장으로서 예수시왕생칠재를 복원해 전승하고 있다. 양주 청련사의 예수시왕생칠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국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상진 스님은 2000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문화예술 5000년' 공연에 출연해 한국불교의례를 세계에 선보였으며 미국 LA슈라인극장에서 열린 '6.25 참전용사 위령 영산대재(2016)', 캄보디아 시엠립 로얄 국립공원에서 봉행된 '제2회 킬링필드 희생자 위령합동천도 영산대재(2017)' 등을 총괄 기획하고 어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